



미국 보험산업의 구조적 인종차별 논란

정인영 연구원

최근 미국에서는 George Floyd 사건을 계기로 인종차별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보험산업 내에서도 구조적 인종차별(Systemic Racism)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임. 소비자협회(CFA), 경제정의센터(CEJ) 등을 중심으로 보험요율 산정 과정에서의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및 복잡한 알고리즘 사용이 증가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 및 차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감독당국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촉구됨

■ 구조적 인종차별(Systemic Racism)¹⁾ 문제는 보건의료, 직업, 교육 등 미국의 사회·경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왔으며, 최근 George Floyd 사건²⁾과 COVID-19를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구조적 인종차별”은 인종차별이 오랫동안 누적되면서 제도로 정착되고, 차별화된 제도와 관념이 인종차별적 관행으로 사회시스템 전반에 걸쳐 구조화된 것을 의미함
 - 이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인종에 따라 개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직접적 차별과 구분됨
- 빈곤, 교육의 불평등, 열악한 주거환경, 의료시스템 접근 부족 등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침
- 최근 개인의 소득수준과 COVID-19 감염률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³⁾, 미국의 중위소득 이상의 지역사회에서 비백인(Non-White)이 백인(White)에 비해 COVID-19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종 간 COVID-19 감염률과 사망률 차이가 인종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하기보다는 보건의료시스템의 구조적 인종차별 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됨
 - 흑인을 비롯한 소수인종은 거주지역 및 고용상태에 따라 의료보장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공공의

1) 구조적·간접적 인종차별은 Structural Racism, Institutional Racism, Systemic Racism 등의 용어로 사용됨

2)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시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비무장상태의 흑인 남성 George Floyd가 사망한 사건으로, 해당 사건 이후 미국 전역에 걸쳐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음

3) Adhikari et al.(2020), “Assessment of Community-Level Disparities in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fections and Deaths in Large US Metropolitan Areas”, JAMA Network

료보험이 의료시스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나 14개 주(州)가 Medicaid 확대에 반대함⁴⁾

■ 보험산업 내에서는 소비자협회(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이하, 'CFA'라 함) 등을 중심으로 보험요율 산정 과정에서의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⁵⁾

- 미국에서는 개별 주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인종, 종교, 국적을 기준으로 요율이나 보험적용 대상을 결정할 수 없어 명시적인 차별은 이루어지지 않음⁶⁾
- 그러나 CFA는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개인의 운전기록과는 무관한 일부 사회·경제적 요인이 인종에 대한 대리변수로 활용되어, 구조화된 간접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함⁷⁾
 - 즉, 주택소유 여부, 혼인상태, 학력, 신용점수 등이 자동차보험 요율 산정 시 반영되어 사고기록이 없는 흑인운전자가 동일 조건의 백인운전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함⁸⁾
 - 예를 들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Homeowner) 보험료가 할인되는데, 이를 적용받는 인종집단 내 인구 비중이 백인의 경우 69.6%, 흑인의 경우 41.4%로 나타났으며, 신용점수가 일정 수준(620점) 이하일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그 적용 비중이 백인 5.4%, 흑인 21.3%임

〈표 1〉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요인별 인종 비중

(단위: %)

구분	보험료 할인·할증 요인	백인(White)	흑인(African-American)
할인 (Discounts)	주택 소유	69.6	41.4
	기혼	51.1	29.3
	대출 이상	33.9	22.0
	경영, 예술, 과학 분야 종사	40.4	29.9
할증 (Penalties)	주택 미소유	30.4	58.6
	사별, 이혼, 별거, 미혼	48.9	70.7
	고졸 이하	36.8	45.3
	서비스업 종사	16.0	24.5
	실직 상태	4.2	8.7
	신용점수 620점 이하	5.4 (평균 734점)	21.3 (평균 677점)

자료: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2020. 6. 17)

4) Jamila Taylor(2019. 12. 19), "Racism, Inequality, and Health Care for African Americans"
 5) Forbes(2020. 6. 18), "Systemic Racism Makes Covid-19 Much More Deadly For African-Americans"; BBC News(2020. 8. 3), "Coronavirus: 'Institutional racism left minorities exposed'"
 6) 정인영(2017), 「미국, 자동차보험료 인종차별 논란」,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7)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2020. 6. 17), "Systemic Racism in Auto Insurance Exists and Must Be Addressed By Insurance Commissioners and Lawmakers"
 8)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factors)들과 보험사고(claims) 간에 인과관계(correlation)가 존재함을 입증하여 요율 산정 시 사용하여 왔으며, 대부분의 주(州)보험감독청은 이러한 인과관계에 근거한 요율을 오랫동안 승인해 옴

■ 경제정의센터(Center for Economic Justice, 이하, 'CEJ'라 함)는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및 복잡한 알고리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bias) 및 차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독 당국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함⁹⁾

- CEJ는 보험업계가 요율 산정 시 사용하고 있는 신용점수, 범죄이력, 직업, 교육수준, 안면인식분석(Facial Analytics) 등이 구조화된 차별을 강화한다고 주장함
- 이에 미국보험감독자협의회(NAIC)로 하여금 보험산업 내에 존재하는 간접차별(Disparate Impact)을 인정하고, 구조화된 편견(Systemic Bias)과 내재된 인종차별(Inherent Racism)을 해결할 것을 촉구함
 - 즉, 관련 데이터의 수집·분석을 통해 소비자에 따른 보험요율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차별적인 결과가 있는지 식별하여 그 원인을 추적하도록 요청함¹⁰⁾

■ 이에 NAIC를 비롯해 일부 주(州)보험감독당국에서는 보험산업 내에 존재하는 차별적 요소를 식별·제거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음¹¹⁾

- NAIC는 2020년 7월 “Race and Insurance”라는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금년 말까지 보험산업 내 인종의 다양성 및 포용수준에 대한 분석,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 관행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발표함¹²⁾
- 뉴욕주보험감독청은 만성환자에 대한 식별, 치료 우선순위 결정, 추가적인 의료혜택 예측 등을 위해 사용되는 UnitedHealth Group의 알고리즘(Impact Pro)이 인종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2019년 말 검사에 착수하였음¹³⁾
 - Obermeyer et al.(201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당 알고리즘에 의해 건강한 백인환자가 아픈 흑인 환자보다 치료우선 순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¹⁴⁾
- 캘리포니아주보험감독청은 보험회사들이 유색인종 및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2019년 12월 차별적인 보험료 책정을 억제하기 위한 규칙을 제언함¹⁵⁾
 - 단체(Affinity Group) 할인을 통해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따른 보험료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개인의 경제수준과 다양한 인종에 대해 합리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함 **kiri**

9) Center for Economic Justice(2020. 6. 18), “To Address Societal Systemic Bias and Inherent Racism in Insurance By Explicit Recognition of Disparate Impact as Unfair Discrimination in Insurance”

10) S&P Global(2020. 7. 29), “Data transparency ‘key’ to end racial disparities in insurance, regulator says”

11) Forbes(2020. 6. 18), “Systemic Racism Makes Covid-19 Much More Deadly For African-Americans”; BBC News(2020. 8. 3), “Coronavirus: ‘Institutional racism left minorities exposed’”

12) NAIC(2020. 7. 23), “NAIC Announces Special Committee on Race and Insurance”

13) Wall Street Journal(2019. 10. 26), “New York insurance regulator to probe Optum algorithm for racial bias”

14) Obermeyer et al.(2019), “Dissecting racial bias in an algorithm used to manage the health of populations”, Science

15) CNBC(2019. 12. 24), “California tries to curb discrimination in auto insurance pricing”